

<전환'96 : 화학산업의 의식변혁을 추구하고 ...>

석유화학산업 발전과 공정거래

한국 석유화학산업은 위기인가?

이 물음에 대해 뚜렷하게 긍정 또는 부정할 수 있는 관계자는 없을 것이다. 그만큼 석유화학은 시황이 예측 불가능하게 흐르는 산업특성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이러한 불예측성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어느덧 시황이 회복된다 싶으면 곧 끝없는 나락으로 빠져들고, 회복 가능성이 멀었다 생각하면 어느새 상승세를 타는 '전문가가 필요없는' 그래서 '정확한' 예측이 아니라 '틀리기 위한' 아니 '틀릴 수 밖에 없는' 예측이 석유화학산업을 좌지우지하고, 여기에 춤추다보면 몇년이 하루같이 흘러버리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석유화학제품이 국제상품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석유화학제품 시황은 국내적인 수급이나 흐름에 따라 좌우되는게 아니라 넓게는 세계 전체의 수급에 따라, 좁게는 지역적인 수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여기에 대응해 가동률을 조정하는 등 생산조절을 통해 시황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치열한 눈치싸움을 전개하는 것이다.

그래도 95년 이후에는 전세계의 에틸렌 생산능력이 9000만톤을 넘어섬으로써 전체적인 수급예측력이 가시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대형공장 한두개에서 사고가 발생하기라도 하는 날이면 가격이 폭등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이제는 미미한 영향에 그치고 있다.

그만큼 생산량이 많아지고, 이에따라 수출입되는 교역량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즉, 교역량이 대폭 증가함으로써 한두개 공장의 사고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또 한가지는 세계 각국이 석유화학 설비의 신증설을 단행할 때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아래 국내수요를 초과하는 대규모 공장을 건설, 일정부분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미국 및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나 수출을 생각해 규모화를 추진했으나, 최근에는 선진국 뿐만 아니라 동남아를 비롯한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들도 대형 플랜트를 건설하면서 잉여물량의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유럽 뿐만 아니라 동남아 각국들이 중국의 공급부족에 따른 수출수요를 집중 겨냥함으로써 석유화학시세가 중국의 의도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95년이후 중국이 석유화학제품 수급이 타이트한 5~8월에는 수입을 제한하고, 수급이 원활해지는 9~12월 수입을 집중시키는 현상은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

95년에 이어 96년에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진 것을 보면, 중국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석유화학기업들이 석유화학제품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기보수를 집중시킨다는 사실을 간파했다고 보는 것이 막연한 추측의 결과는 결코 아닐 것이다. 97년 중국의 태도를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몇가지 정황을 종합해볼 때, 최근 석유화학산업의 특성은 중국의 반사회주의적인 경제체제가 수급에 탄력성을 불려넣음으로써 수급이 급작스럽게 변화하지 않는 가운데 가격탄력성이 큰 방향으로 움직여 예전과 같은 가격폭등현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석유화학기업들은 과거와 같이 몇년간의 적자를 가격폭등을 통해 만회하려는 사고를 접어두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국제경쟁력에 바탕한 신증설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감성적이고 즉흥적인 투자계획은 철회되어야 하고, 장기분석에 바탕을 둔 새로운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학저널이 96년 연중기획으로 지적하고 있는 'FOCUS-석유화학 카르텔'의 참뜻이 여기에 있음을 주지시키고자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를 비롯한 정부부서들이 전문지의 지적을 뒤로한 채 재벌 편들기에 급급, 참다운 산업발전을 외면하고 있는 점은 대단히 안타까운 점이다. 경기가 불황인 시점에서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는 '대기업 손보기'를 자제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고, 오히려 불공정 거래를 통한 오판을 불러옴으로써 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주지시키고자 한다.

통산부 및 공정거래위는 진정한 산업발전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야 하는 시점이다.

<화학저널 1996/10/21>